

2020년 9월

#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우리들의 행복한 마을이야기

제11호



1. 거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2.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 포럼 3. 사천마을학교(목공놀이터 & 신나는마을학교) 4. 이달의 사람책-하동마을교사 정주용

TOP NEWS

## 거제시, 2021년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2021 거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식

경남교육청은 4일 거제시청에서 2021년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박중훈 교육감과 변광용 거제시장 이 참석하였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거제시는 내년부터 2년간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게 된다.

거제를 시작으로 9월 말에는 창녕군, 10월에는 산청군이 업무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2021년에는 거제·창녕·산청 등을 포함하여 행복교육지구는 모두 12개 시·군지역으로 확대된다.

## 경남마을교육공동체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 개최

경상남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남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추진단이 공동주최하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학 협력 포럼'이 지난 8월 2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연자, 발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질의응답 중인 발표자

심성보 부산교대명예교수(마을교육공동체포럼상임대표)의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제화와 민관학 협력의 필요성'을 주제로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경남 마을교육 중간지원조직 설립 연구'에 대한 발표와, 한들산들 사회적협동조합 이순자 이사장의 '경남마을교육공동체, 내일을 말하다'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의원은 조례 제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순자 한들산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제는 민관학이 함께 소통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생각할 때이다.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사천마을학교 목공놀이터에서 놀아요~

사천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사천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의 씬이죠~ 목공놀이터는 사천시 사천읍 앞 들판(정동면)에 위치한 오롯목공방에서 실시하는 마을학교이다. 오롯목공방은 30평 규모의 취목 공방으로 테이블쏘, 자동대패, 수압대패, 라우터 테이블 및 각종 샌더 등 목공방에서 갖추어야 할 대부분의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며 본래 공방은 진주·사천 인근 목공인들의 취미 활동과 학생들의 목공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험활동에서 필수인 가장 안전한 목공 장비인 스크롤쏘도 10대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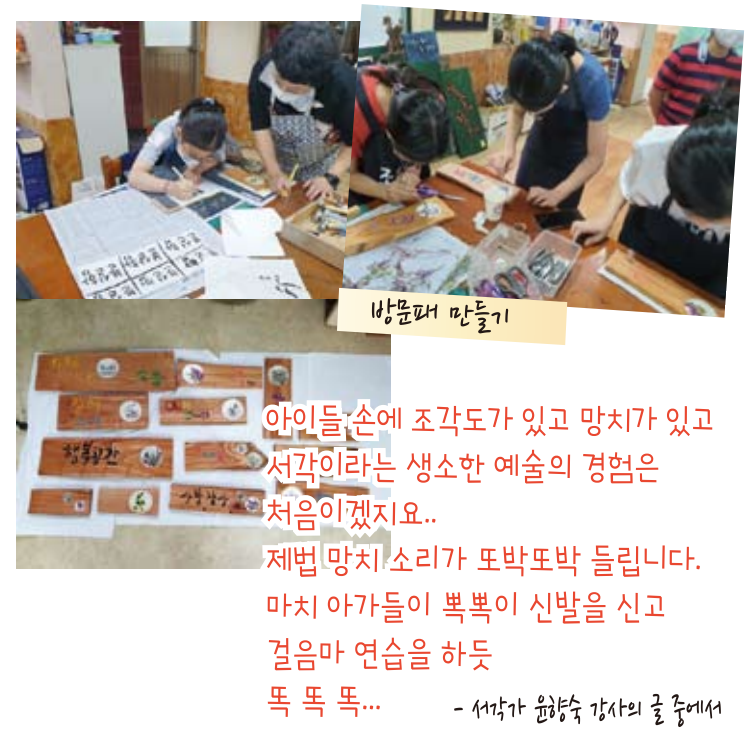


우드 스푼 만들기



6.13일 목공놀이터 첫 수업 중

움직이는 관절동물 만들기



방문패 만들기

아이들 손에 조각도가 있고 망치가 있고 서각이라는 생소한 예술의 경험은 처음이겠지요.. 제법 망치 소리가 또박또박 들립니다. 마치 아가들이 뽁뽁이 신발을 신고 걸음마 연습을 하듯 툭 툭 툭... - 서각가 윤희숙 강사의 글 중에서

목공놀이터는 강동주(사천초등학교 현직 교사) 마을교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목공 분야에 실력을 갖춘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트 스크롤쏘의 1인자 김득술 선생님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가구명장 김병수 선생님의 전통 짜임가구 이수자 및 서각가, 카빙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미술학 박사, 목공예전문가 등이 7가지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1. 움직이는 관절동물(스크롤쏘잉), 2. 방문패 만들기(서각과 레진), 3. 꽃바구니(서각과 채색), 4. 오색 냄비받침과 우든 스피커(수공구), 5. 우든펜과 샤프(우드터닝), 6. 벽시계(우드버닝), 7. 커피 스쿱(카빙) 등의 프로그램을 학생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3기수), 고학년(4기수)을 운영 중에 있다.

목공놀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반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의 원자재만 제공하여 하나하나 자기 힘으로 가공해 나가면서 작품을 완성해가는 것이다. 체험활동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학생들의 성취감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동주 마을교사는 “우리 목공놀이터에서는 성취감의 크기에 체험활동의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성취감은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이며, 학습능력을 키우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에게는 행복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자부심인 동시에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뿌듯해 하였다.

# 신나는마을학교의 한그릇 똑딱 김밥-어때?

여름방학 맞이 4주간의 요리수업 - 학생들에게 인기



사천여성회(대표 여명순)에서 진행하는 신나는마을학교는 한그릇 똑딱-요리만들기 수업과 선물이똑딱-천연제품만들기, 놀이가 똑딱-숲에서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나는 마을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4주 동안 아이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직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시간은 김밥 만들기. 준비물은 도시락통. 20명의 참가 학생은 마스크와 발열체크 등을 하고 요리를 위해 손 씻기까지 완료!  
도마가 놓여있는 자리에 앉으면 수업 시~작!



한살림과 마을교사 텃밭에서 준비한 재료 소개



아이들이 직접 재료 준비를 해요.



밥을 3분의2만큼 채워넣고 재료를 넣어요.



짜잔~ 이제는 소풍갈때 직접 쌀 수 있을까요??

일반김밥과 꼬마김밥, 유부초밥까지 만들고 방울토마토로 플레이팅 까지 가미한 예쁜 도시락 완성!

여명순 마을교사는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과 ‘베란다소풍’ 인증까지 해줍니다. 요리해서 누군가와 나누는 친구들 마음에 늘 기쁘답니다.”라고 하였다.



## 마을교육공동체를 꿈 꾸는 농부

지은이 : 정주용

하동 팜하우스 & 작은도서관 몽당연필 대표

### 나는 농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동행복교육지구 ‘토요마을학교 팜하우스’, ‘돌봄공동체 몽당연필’의 마을교사 정주용입니다. 토요마을학교 팜하우스와 돌봄공동체 몽당연필은 하동군 횡천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몽당연필에서 함께 운영되는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학생이 24명뿐인 작은 마을인 이곳에 몽당연필은, 초등학교 지역의 대표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과 후 체험학습, 예술, 놀이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리산 청학동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횡천강과 핑크물리공원이 가까이 있는 멋진 주변 환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이들이 악기도 마음껏 연주하고 들판에서 힘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이 놀이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생명을 돌본다는 것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은 없다.”는 웬들 베리 작가가 “농사는 상상력의 실용예술”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땅의 정직함도,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질서와 위대함도 자연에서 배운 경험의 지식이었습니다.

이 배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12년 전, “나이가 들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볼까?” 하는 작은 꿈을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하며 농촌체험농장을 준비하였고, 2015년 농촌체험농장 인증을 받아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열 수 있었으며, 마침내 지난해 하동군과 경남도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별천지하동행복지구가 되면서 꿈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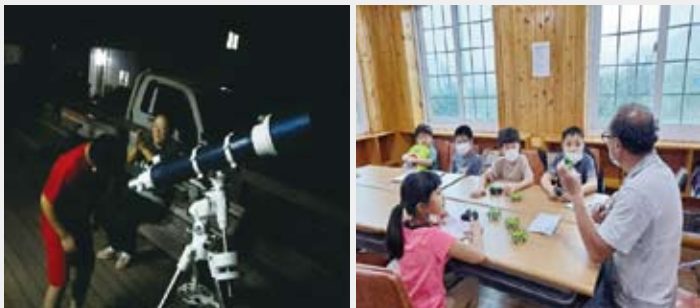
## 농부, 아이들을 만나다

20년차 농부로서 농장 '팜하우스'를 운영하며 마을학교와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7명의 마을교사들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독서교실과 문화예술교실, 목공, 영화, 푸드테라피, 요리, 수·과학교실(기하학, 천문우주과학, 드론), 또 하동의 자연을 이용한 하천·숲 생태 체험교실(하천생태탐험, 숲 관찰 체험, 철새관찰), 꽃식물교실, 노작교실(체리, 감자, 블루베리, 옥수수, 밤..), 여름캠프 등 마을교사들과 봉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수업과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보금자리 돌봄교실과 토요일마을학교 팜하우스에는 아이들이 찾아와 웃음꽃을 피우고 늘 피아노 소리가 나며, 그 속에 책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는 게임도 하고 수도도 떨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자유로운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책임감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름 긴 장맛비가 큰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고,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마을학교의 즐거운 시간도 잠시 멈춰지며 긴장과 경계의 시간의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방역과 예방수칙을 잘 이행해 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감사하며 빨리 안정화되어 마을학교를 다시 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문우주라학 & 특수 수업

## 아직은 어른이 필요한 돌봄의 아이들

“선생님, 여기 도와주세요. 여기도 도와주세요. 선생님 더워요. 머리에 열나요. 선생님 물 주세요. 선생님, 물 옆질렸어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응, 갔다 와. 나도요. 차례대로 갔다 와. 선생님, 배고파요. 간식 언제 먹어요? 간식 먹고 싶어요. 응,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선생님..”

올해부터 작은도서관 몽당연필이 개관되어 만든 돌봄교실은 하루가 정신없이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얼마나 다행인 공간인지 모릅니다. 마을학교와 돌봄교실을 운영하다보면 소규모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게도 하동군은 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연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마을학교 팜하우스와 작은도서관 몽당연필 돌봄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동교육지원청의 하선미 교육장님을 비롯한 김태성 장학사님, 홍성숙 담당선생님 외 그리고, 횡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담임선생님, 작은도서관 사서를 비롯한 마을교사,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또 하나의 꿈을 꾸며..

현재 하동 꿈-키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진로·직업체험 네트워크 구축, 초·중학교 체험활동과 자유학년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 체험·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경상남도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교육사회적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